

대중의 집합적 슬픔 속에 내재된 애도담론과 감정정치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중심으로

정수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 전공

snjoung75@gmail.com

- I. 머리말
 - II. 집합적 슬픔과 애도담론
 - III. 두 번의 눈물, 두 개의 감정공동체
 - IV. 애도의 감정정치: 〈미스 프레지던트〉 VS 〈노무현입니다〉
 - V. 맺음말: 민주적 인정공동체를 향하여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감정양식'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7-V01).

I. 머리말

한국현대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먼저는 박정희(1917-1979) 대통령으로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30년 후 2009년 노무현(1946-2009)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강력한 정관계 로비수사를 받던 중 뇌물 수수 혐의 압박에 시달리다 5월 23일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¹ 이 두 사건은 ‘국가원수’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국가지도자의 죽음과는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적 동감과 집합적 애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두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지점이자 대중이 각기 다른 가치와 의미체계를 부여하여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두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통령’이다.²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집합적 슬픔과 애도는 한 개인이 사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 느끼는 원초적인 슬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집합적 슬픔은 한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극적으로 표출된 ‘사회적’ 감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감정은 전승되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결집을 이끌어내는 집단적 환상(혹은 신화)·규범·상징체계를 만들어낸다.³ 나아가 이

1 두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복잡한 내막과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하지만 그에 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2 한국갤럽이 2014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한국인 17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을 묻은 결과(자유응답)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1위였고, 이어 박정희(28%), 김대중(16%) 순이다.” 《경향신문》, 2015년 3월 12일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3121341411#_csidx50dee545c0c4a4b867a648fbbc8c823).

렇게 구축된 상징체계는 사회 현실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판단과 가치부여의 동기로 작동한다.

슬픔은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과의 감정이입·투사·동일시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깨졌을 때 그것을 마치 내 자신의 불행으로 인식함으로써 표출되는 감정적 반응이다.⁴ 또한 슬픔은 상호주관적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는 행위자로 하여금 이 관계를 총체적으로 성찰해 보는 계기를 가져다준다. 현대사회에서 상호주관적 관계는 매우 다양한 범주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연인, 친구 관계에서부터 유사사회적 관계에 가까운 유명인사, 대중스타, 국가지도자, SNS친구, 심지어 해외 스타나 지도자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그 범위가 확산된다. 하지만 상호주관적 관계가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슬픔은 강도·밀도·지속성·확산성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동발생적으로 슬퍼하지 않는다.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의미체계가 공유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감정적 동기를 촉발하지 못한다. 모든 감정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듯이 행위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이의 죽음은 내심 환영받기까지 한다.

한 시대 대중의 집합적 슬픔은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운명과 관련이 깊다.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와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대중은 그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 예를 들어 대중스타나 유명인사가 불행하게 사망했을 때 대중이

3 뒤르케임, E. 지, 노치준·민혜숙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민영사, 1992).

4 Ben-Ze'ev, *The Subtlety of Emotions*(Massachusetts: MIT Press, 2001), p. 466.

슬퍼하고 애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다. 집합적 슬픔은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대중의 열망이 집중된 인물에게 죽음이나 그에 상응하는 불행한 일을 닦쳤을 때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집합적 슬픔은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재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재확인하려는 감정적 의례 행위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치적 지도자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대중의 집합적 슬픔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거대한 정치적·공적 의례 행위이다. 베레진의 주장대로 “공적인 정치적 의례는 민족적 자아가 규정되는 한정된 공간인 정체성의 장으로 기여한다. 의례행위는 형식을 통해 친밀성을 전달한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은 “정치적 의례가 의존하는 중심축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능력을 지닌 정치적 학습 수단이다.”⁵

대중의 집합적 슬픔과 애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당대 대중의 집합적 열망에 함축된 성격과 내용, 나아가 그들의 집단정체성까지도 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준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정체성을 규명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집합적 슬픔은 그것의 강력한 원천이다. 왜냐하면 집합적 슬픔은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상징적 가치의 상실이자 의미체계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자기확인 및 결속의 재강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인물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슬픔과 애도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내재적 성격과 가치의 속성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죽음과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각기 다른 양태로 표출되는 대중의 슬픔과 애도를 분석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의 서로 다른 논리와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이질성은 보수/진보, 우파/좌파와 같은 이념적 준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5 베레진, 「감정과 정치적 공동체: 정체를 위한 감정동원」, 제프 굿윈 외 저,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한울아카데미, 2012), 145쪽.

는 그보다 더 심연에서 작동하는 감정구조의 이질성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요컨대 오늘날까지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의 행위에는 이념적·인지적 요인보다는 그것을 초월한 감정적·심미적 동기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처럼 공통의 이념적 지향을 통해 결속된 집단이 아니라 감정적 동질감을 통해 구축된 공동체를 '감정공동체'라고 개념화하고 이 감정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두 대통령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각기 다르게 표출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감정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자 했다. 감정정치는 감정을 매개로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구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권력효과이자 상호투쟁의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두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대면한 대중의 집합적 슬픔과 애도를 비교분석하면서 각기 다른 인물에 대한 대중의 슬픔 표출방식, 집합적 슬픔에 깃든 가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러한 집합적 슬픔의 사회적 효과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이분화된 정치지형을 감정사회학적으로 해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둔다. 첫째, 두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대중의 슬픔과 애도담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본다. 둘째, 집합적 슬픔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와 애도담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을 비교·분석해본다. 셋째, 대중의 슬픔과 애도(의례)를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 공동체의 구축 논리를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집합적 슬픔이 한국인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감정정치의 효과를 파악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사설 포함)와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 동영상, 사진, 영화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신문기사의 활용도가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서거

직후 대중의 반응을 가장 빠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해준다는 점, 일반 대중의 시선에 맞춰 보도한다는 점, 그리고 보도된 기사의 양도 많고 무엇보다 대중적 확산력이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두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극적인 반응을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성을 지닌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편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편향성은 나름 의도된 것이다. 박정희에 대한 대중의 애도는 주로 보수언론매체를 통해 이뤄졌다면, 노무현에 대한 애도는 대체로 진보매체를 중심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대중매체가 각기 다른 감정공동체의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애도의 감정정치를 논의하기 위해 두 편의 다큐영화 <미스 프레지던트>(2017)와 <노무현입니다>(2017)를 활용했다. 이 두 영화는 두 대통령의 서거가 한참 지난 현 시점에서 두 국가지도자를 대중이 어떻게 애도하고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미스 프레지던트>의 경우 연출자는 최대한 박정희를 애도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제작을 했고, <노무현입니다>는 노무현을 애도하는 행위자의 시선에서 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두 영화는 애도의 사회적 효과와 감정공동체 형성에 각인된 애도의 정치적 효과를 잘 드러내준다. 이들 영화의 서사구조, 기호의 배치, 이미지 재현 등에는 대중의 슬픔과 애도가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대통령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는 애도의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애도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집합적 슬픔과 애도담론

1. 국가지도자: 대중의 감정적 결합태

대중의 집합적 슬픔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체계와 의미구조가 깨짐으로써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 또는 대중의 집합적 열망이 집결된 특정한 인물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그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상실감에서 기인한다. 여기에는 국가지도자뿐만 아니라 대중 스타와 같은 공적인 인물들의 죽음도 해당된다.⁶ 하지만 슬픔의 강도와 확산 범위는 그 죽음의 발생 원인을 비롯하여 대중과 그 인물이 맺고 있는 감정적 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의 사망과 박정희의 사망을 비교해봤을 때 대중이 표출한 집합적 슬픔과 애도의 성격·발흥 정도·밀도·확산범위는 매우 상이하다.⁷

국가지도자의 죽음이 늘 동일한 수준의 대중의 슬픔과 애도를 동반하지 않는다. 최근까지 행해지고 있는 박정희를 향한 추모와 애도의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승만에 대한 대중의 애도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듯이 말이다. 대중과 국가지도자 간의 관계맺음이 어떤 형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대중의 열망이 국가지도자에게 얼마나 투사되었는가의 여부, 그리고 국가지도자는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켰는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국가지도자의 죽음 앞에서 동일한 태도나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국가지도자의 서거에 가슴 아파

6 터너 저, 권오현 외 역, 『셀러브리티』(이매진, 2018).

7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의 경우 하와이로 망명한 후 1965년(91세)에 사망했는데, 그의 장례식은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음에도 그의 장례식이 치러진 날 상당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를 표했다(참고자료: KBS 광복 60주년 영상 실록 <1965년> 편).

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죽음을 내심 반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지도자가 부당한 권력으로 시민의 생존을 억압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은 희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 이는 켐퍼의 주장에 따라 상호 간의 권력-지위 구조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적 전도라고 볼 수 있다.⁸

국가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의 정도는 대중의 열망을 그가 얼마나 실현시켜줄 수 있는가에 따라 가늠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데올로기적·담론적 장치를 활용하여 정치권력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대중이 절실하게 바라는 정치사회적 요구를 지도자가 채워줄 때, 즉 경제성장이나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때 그에 대한 대중의 집합적 열광은 고조된다. 이때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는 신뢰감, 유대감 등 상호 인정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감정적 결속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결속력은 강력한 상징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인지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초월적 힘으로 점차 진화해간다. 이로써 대중적 열망을 구현한 인물은 신격화되어 영웅으로 오랫동안 기억된다.

대중과 국가지도자 사이에 결속력은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적 결속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집단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지도자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대중의 집합적 슬픔은 사회적 결속이나 연대의 징표이기도 하다. 대중과 국가지도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규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결합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적 이념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이데올로기적 지배효과는 대중에게 인지적 왜곡을 가함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를

8 Kemper,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New York: John Wiley, 1978).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인지적 차원을 넘어 신념적 요소가 결합된 의미체계이다. 즉, 이데올로기는 현실이 반영된 관념체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사상에 대한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내게 하는 동기로도 작용한다. 이데올로기는 그 배후에 특정한 숨은 감정을 동반하기 마련이며, 감정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실천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⁹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특정한 인간집단의 감정적 지지와 열정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인지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의 정치적·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감정적 결속은 '프레임(frame) 구성'에 의한 효과로 이해되기도 하다. 레이코프가 주장하듯이, "프레임은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기 때문이다.¹⁰

국가지도자는 특정한 정치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획을 대중에게 관철시킨다. 이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 지지부터 반대편의 극렬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국가지도자는 양극단의 세력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지도자는 자신의 지지집단의 열망을 대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도자와 대중은 상호 이데올로기적 결합을 넘어 감정적 유대감을 구축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박정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지적 지지나 합의만으로 결속된 것이 아니다. 이들 간에는 상호 감정적 결합을 통한 신념이나 가치공동체라는 유대감이 내재하고 있다. 박정희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히 인지적 차원에서만 이해

9 Freeden, "Editorial: Emotions, ideology and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2013).

10 레이코프 저,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창비, 2007), 45쪽.

되었다면 대중의 집합적 애도와 슬픔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집합적 슬픔의 정도가 얼마가 깊고 넓은지는 대중과 국가지도자 간의 감정적 결속력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박정희와 노무현 두 대통령은 각각 대중과 어떤 감정적 결속력을 갖고 있었을까? 그들의 결속에 숨겨진 상징체계와 감정구조는 무엇일까?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감정공동체인가? 이를 위해 필자는 엘리아스의 '결합태' 개념을 응용하여 국가지도자와 대중 간의 고유한 감정적 상호작용 형식을 '감정적 결합태'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한다.¹¹ 감정적 결합태는 특정한 감정을 매개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적 관계 양태이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상호작용 형식이다. 이를 통해 두 대통령에 대한 각기 다른 집합적 슬픔과 애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할 것이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한 애도담론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 박정희 애도담론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한 박정희에게 그와 같은 죽음은 대중에게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서거하자 대부분의 언론은 애도문을 발표했고,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이 절에서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애도담론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해보므로써 박정희가 대중들에게 어떤 인물로 인식되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와 차이가 있다면 매체기술의 차이로 당시 대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

11 Elias, *What is Sociology*(London: Hutchinson & Co., 1970), pp. 128-133.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문은 대체로 상당히 정제된 형식으로 보도되었다. 먼저 1979년 10월 27일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서 끼든 5천년의 가난을 몰아내고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위업을 못 다하고 비명애간 것은 우리의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는 박대통령의 영도 아래 계속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잘 살고 부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그 기세를 몰아 민족적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하나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를 줄지에 잃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

위의 사설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전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극심한 가난, 저발전, 빈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영도자”로 기억되었다. 박정희의 업적은 ‘가난극복’,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으로 압축된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5·16혁명을 주도, 민족지도자로 선봉에 나선 박대통령의 집권 18년은 한 마디로 조국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의 역사창조와 그 구현과정이었”고 “경제건설, 자주국방, 남북대화의 주도, 새마을운동의 제창 등 그의 치적은 조국근대화의 좌표를 설정하고 응비의 80년대로 향하는 기틀을 조성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¹²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큰 차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화의 목표를 달성하

12 「복지시대를 두드리며…… 민족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치적 18년」,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는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¹³

당시 전후 세대에게 가난극복은 생존적 위기로부터 탈출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에게는 절박한 실존적 문제였다. 박정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당시 청장년층 세대에게 박정희는 가난극복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과 함께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책임 있는 지도자’이자 생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정희에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상징적 코드는 가난한 대중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자본이었다. 박정희를 애도하는 대부분의 기사에는 ‘가난한 어린 시절’이 언급된다. 《경향신문》은 박정희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전한다.

박대통령은 언젠가 ‘어느 8월 보름 전날, 학교에서는 내일이 추석이라고 오전 수업만 하고 학생들을 돌려보내주었지. 마을을 들어서자 떡치고 전부치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으나 정작 집에 들어서자 전혀 음식을 장만하는 기미가 없는 냉랭했던 그 날의 슬픔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유년 시절을 회상했다.¹⁴

박정희의 ‘가난극복 서사’는 곧 서민 정치로 승화된다. 일반 서민과의 거리 좁히기는 ‘가난한 태생’ 코드보다는 대중들에게 표출되는 실제 모습을 통해 더욱 극화될 수 있다. 한 일간지는 박정희의 서민적 풍모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박정희는 “소비절약운동이 전국에서 범국민적으로 일어났을

13 「역대 대통령 선호도 1위 박정희…… 2위는 노무현」, 《한겨레신문》, 2015년 8월 7일자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3558.html).

14 「가난 속에서도 국교 땀 반장만, 과묵·강한 정의감…… 영웅전 즐겨」, 《경향신문》, 1979년 10월 29일자.

때에는 '세수나 손 닦은 수돗물을 버리지 말고 받아 걸레를 찌는 등 2-3번 이용할 수도 있다'고 자신의 실천사례를 알려주기도 했으며, 가뭄이 계속 될 때에는 비를 기다리는 농민을 생각하여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고 지방출장 중에는 식사조차 부족한 농민들이 마음에 걸려 샤워도 하지 않을 정도였다.¹⁵ 이러한 박정희의 이미지는 당시 일반 대중의 생활상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했다. 박정희의 가난한 어린 시절과 가난극복 서사는 대중의 생애과정과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는 인격적 친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일간지에 실린 다음 주부의 애도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영남 땅 작은 마을의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책보를 허리에 차고 수십 리 학교 길을 다닌 어린 시절, 그리고 서까래가 앙상한 그분의 생가는 우리를 서민의 아낙에게 친근감을 불러 넣었고 가난을 체험한 그분의 언사나 행동은 그래서 우리의 심금을 울려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자칫 잊게 마련인 서민의 체취를 끝내 잃지 않고 눈두렁에서 들밥을 막걸리와 곁들이는 소박함이 서민 대통령이라는 애칭과 함께 그 분을 돋보이게 했습니다.¹⁶

더욱이 박정희는 자신이 겪은 가난의 한을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부은 영도자로 추앙된다.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가난극복의 서사를 대중화했다.

..... 반만 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중흥의 햇불을 높이 치켜든 박대통령의

15 《매일경제》, 1979년 11월 3일자.

16 「이 맑은 가을에 슬픔을 남기시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경향신문》, 1979년 10월 30일자.

소년시절은 그의 회고담 속에 비쳤듯이 ‘최저한의 생활’마저 위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했다. 그의 어린 눈에는 그러나 가난한 가정환경 못지않게 천고의 빈곤에 찌들어온 농촌의 생활상이 한층 더 뼈아프게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다. 5·16혁명 후 조국근대화를 공약사업으로 내걸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소년시절의 한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웃지 않는 대통령’의 근엄한 이미지도 그런 후천적 체험의 소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¹⁷

세 번째로 박정희 애도담론에서 그는 서민적인데 그치지 않고 강직한 인격적 품모를 지닌 인물유형으로 등장한다. “박대통령의 인간상은 소박한 시민성·비타협적인 정의감·청렴·강직성·군인적인 책임의식과 근엄성 그리고 「하면 된다」는 불사조와 같은 용기와 추진력으로 집약되고 있다.”¹⁸ 나아가 그의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에는 따뜻한 인간미, 소탈함, 자상함, 솔직담백함, 굳은 의지, 인정 넘치는 훈훈한 인간미 등이 나열된다. 박정희는 “자나 깨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근엄하면



사진1-1963년 6월 3일 관농일 당시 농부들과 모내기(오른쪽)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왼쪽)(출처: 《조선일보》)

17 「구국의 일념 속 살다 간 박대통령 일대기」,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서도 그 이면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인간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박정희가 때때로 연출한 대중과의 공감 스펙터클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발(旱魃)이 들 때면 농민과 더불어 걱정하고 풍년이 들면 촌로와 막걸리를 마시며 너털웃음을 웃던 그의 소탈한 풍모에서 우리는 자민(庶民)대통령의 체취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¹⁹

박정희의 이런 모습은 “착하고 거짓이 없는 순박한 심성을 가진 …… 우리 국민상의 전형”이었으며, “다사다난한 시대에 2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박대통령은 솔직하고 담백한 한국서민의 참모습을 대변해주었다. 그만큼 그는 거짓을 모르는 정직한 인간”으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²⁰ 대중에게 박정희의 카리스마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는 그의 경제적 업적과는 다른 맥락, 즉 휴머니즘적인 모습을 통해 더욱 굳어진다. “…… 박대통령의 또 하나의 성격적인 특색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밖으로 남이 알도록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사가 재정 등 난제에 부닥쳐서도 별로 걱정하는 빛을 본 일이 없다는 게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의 하나같은 말이다. 오직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가는 굳은 의지를 보였었다. 그의 이같은 성격은 매사를 ‘하면 된다’는 모토 아래 무슨 일이든 기어이 해내고 나서야 직성이 풀렸다.” 여기서 ‘하면 된다’라는 구호는 대중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보다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대중과의 감정적 교감에 가깝다. 이 말 속에는 구조적·제도적 조건이나 권한이 아닌 심리적 동기와 열의만으로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적 행실이 강조된다. 이는 누구든 ‘하면 된다’는 감정적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박정희와 쉽게 동일시할 수 있게 해주었다.

18 《매일경제》, 1979년 11월 3일자.

19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20 「국수·막걸리 농민과 함께 즐긴 “서민의 대통령”, “하면 된다”를 생활신조로」,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위의 인용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애도로 끝을 맺는다.²¹

…… 박대통령은 서민적이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 세계의 어느 지도자가 이처럼 검박할 수 있을까 여겨질 정도로 근검절약에 스스로 수범을 보였다. 점심은 언제나 대개 국수로 대신하며 저녁도 일반시민 가정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된장찌개 정도의 소찬을 식탁에 올리게 했다. …… 그는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 우리와 세상을 달리했지만 그가 가졌던 정직함과 소탈한 성품 그리고 인정에 넘치는 훈훈한 인간성은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 애도담론에는 “검소한 생활태도”, “정의감”, “강직성”, “끈기와 과단성”, “책임의식”, “인정미”, “예리한 직시력”이 강조된다.²² 미디어에 담긴 박정희 애도담론은 당시 대중의 실존적 상황과 의미론적인 상동성을 지닌다. 박정희의 가난한 유년시절, 가난극복의 영웅서사, 조국근대화과 민족중흥이라는 대서사는 대중의 열망과 잘 부합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가난극복을 열망하고 자발적 노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바랐던 일반 서민들의 욕망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대중은 박정희의 삶과 자기 자신의 삶을 동일시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의 업적은 모두 민족과 국가발전, 즉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²³ 요컨대 박정희 애도담론에는 지도자와 대중 간의 유사 인격적 혹은 가족적인 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박정희는 저항세력에 대해서는 폭력과 억압으로 일관했지만 그 외 일반 대중에게는 유사 아버지나 조국근대화에 헌신한 영웅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21 위의 기사.

22 「구국의 일념 속 살다 간 박대통령 일대기」,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23 황병주, 「대중은 박정희의 성공을 욕망했다」, 『1970 박정희 모더니즘』(천년의 상상, 2015), 6장 참고.

3. 노무현 애도담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또한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을지도 모른다.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노무현 애도담론은 주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대표 일간지들이 노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다지만 각계각층의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애도의 글과 추도하는 시(詩)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애도담론과 시간성 간에는 밀접한 상관성을 갖기 마련인데, 가령 대중의 반응이 여과 없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 수 있는가는 집합적 슬픔의 내적 의미와 성격 규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애도담론은 주요 언론매체의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 전달되었다면, 노무현 애도담론은 제도화된 언론매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이는 노무현 애도담론이 실재성을 한층 더 강하게 반영하면서 대중적 슬픔을 형성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노무현 애도담론은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 바가 크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우선 일간지에 나타난 애도담론부터 살펴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년 생애는 도전과 승부의 역사였다. 노 전 대통령의 도전과제는 시대에 따라 가난, 학벌, 독재, 지역주의 등으로 바뀌었다. 드라마틱한 성공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그의 도전은 2003년 16대 대통령 취임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전자’, ‘풍운아’로서가 아니라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²⁴

24 「가난·권위·지역주의 벽에 도전한 ‘풍운의 삶」, 《조선일보》, 2009년 5월 24일자.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노무현은 개인적으로는 가난과 학벌, 정치인으로서의 독재와 지역주의 타파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평범한 농민의 자식이자 상고 출신의 학력을 가진 노무현은 엘리트 집안이나 고학력을 기반으로 정계에 들어선 다수 정치인들의 하비투스와는 확연히 달랐다.²⁵ 그의 소탈함과 직설적인 성격 그리고 탈권위주의적 성향은 시시때때로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과 충돌을 일으켰으며, 반대세력으로부터 무시와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²⁶ 노무현의 이러한 성향은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노무현의 비주류적이고 탈권위주의적 풍모 그리고 도전적인 기질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 게 호소력을 지녔으며,²⁷ 서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어느 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그는 많은 걸 주고 떠나갔다. 기득권 세력에는 당당하고 도발적인 언행으로 각인돼 있을지라도, 우리 서민들에겐 늘 포근하고 따뜻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 그가 갑작스레 떠나갔으니 시름 많은 서민들은 얼마나 애통하고 서럽겠는가!”²⁸라고 애도한다. 다음 한 대학생의 애도 글에는 노무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알게 해준다.

-
- 25 본 논문에서 ‘하비투스’는 부르디외를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여러 개념으로 번역될 수 있다. 맥락에 따라 습속, 성향체계, 관행 등의 용어로 표현되었다.
- 26 2004년 당시 노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한 우익단체는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대통령 부부의 자질에 대해 비난하기까지 했다. 다음은 우익단체의 집회현장에서 나온 발언의 내용이다. 송만기: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국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 청중들(함께): “없어요” /송만기: 앞에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 이희호여사 이대, YS여사 이대……. /청중 : 권양숙 여사 여사 하지 마요. 권양숙이 무슨 여사예요? / 송만기: 뭐? 여자 아니라우. / 청중(일부): ××년이지. /송만기 : ××년. 그래 그래 맞아. /청중(일부): 권양숙이 ××년이야.
- 27 2000년 대선 경선 당시 젊은층으로 구성된 ‘노사모’ 회원들은 노무현의 탈권위적인 모습을 빗대어 ‘노짱’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 28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8일자(<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57500.html>).

..... 난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임을 믿고 젊음을 누리며 꿈을 꾸며 살아왔다. 몰상식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 행동 등을 보면서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리라 생각해왔다. 비주류가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하고 주류가 비주류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꿈, 희망, 나의 청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노 전 대통령은 조금은 다른 정치인이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정치인에게 보이지 않았던 어떤 원칙이나 소신이 보였다. 나는 그를 통해 확고한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먼 훗날에 '이쯤 되면 이제 좀 살 만해진 것 같지요'라며 막걸리 한잔 나누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내 꿈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다. 젊기에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이제 힘을 잃었다. '그래도 사람이 아직 희망이잖아요. 아직은 이 사회에 희망은 있어요. 내가 한 번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지요.' 이제 더는 이 말은 내 목소리에서 나올 것 같지가 않다.²⁹

우선 노무현 애도담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가치는 꿈, 비주류, 서민, 민주주의, 탈권위, 도전, 소박함, 약자, 인권 등이다. 여러 애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무현은 한국사회의 비주류, 약자, 청년들에게 탈권위와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모되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사후평가에 대한 미디어의 언어 연결망 분석에서도 노무현은 '비리, 검찰, 서거, 죽음, 탄핵, 희생, 비극'과 같은 비판적인 언어와 함께 '탈권위주의, 정치적 도전, 탈지역주의'와 같은 능동적 언어들로 재현되었다.³⁰ 그가 임기 내내 보여줬던 기득권과 주류사회의 폐단에 맞서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그 목표의 달성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제왕적 권력문화'에 균열을 가했다는 점에서 큰

29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8일자(<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57500.html>).

30 이완수·최명일, 「한국 대통령 죽음에 대한 집합기억: 김대중·노무현 사후평가에 대한 미디어의 언어구성」,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2014), 147쪽.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행적은 시민들의 다음과 같은 애도의 글에서 뚜렷하게 재현된다.

당신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은 바로 그 권력이 당신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남상만, 52세, 서울·자영업)

최고 자리에 오른 대통령이지만, 너무 소박하고 서민적인 모습에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이수정, 20세, 경기 부천·대학생)

노 전 대통령 덕분에 잠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잘 사는 세상이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한상경, 31세, 서울·직장인)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청산, 특권의식 탈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새삼 깨닫습니다.(이창언, 42세, 서울 성동구·직장인)³¹

두 번째로 노무현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지도자로 표상되었다. 노무현은 자신의 생애에서 그런 목표를 실현한 사람이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재야운동가를 거쳐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노무현이 걸어온 길은 한국사회의 높은 사회문화적 장벽을 하나씩 깨부수는 여정이었다. 그의 드라마틱한 여생은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가능성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슬픔에는 그의 이 같은 개인적·정

31 「제주에서 서울까지 당신을 떠나보내며」,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8일자(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7570.html).



사진2-퇴임 후 자신의 고향 경북 봉하마을에서 지내는 모습(출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치적 여정에 대한 극적인 종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대중은 노무현을 통해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걸었고, 그의 소박하고 소탈한 모습에 인격적인 동일시를 쉽게 할 수 있었다. 퇴임 후 노무현의 삶 또한 고향의 주민들과 농촌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장례기간 동안 미디어에 등장한 그의 이미지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대면하는 장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세 번째로 대중에게 노무현은 ‘바보’였다.³² 대중에게 ‘바보 노무현’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진정성을 고수한 인물이었다. 대중의 애도에는 그의 무모한 도전을 지지하는 돈키호테적 서사가 깃들여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노무현의 용기 있는 기사도적 도전은 일반 시민에게 자신의 열망을 대신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는 노무현이 일반

32 ‘바보 노무현’이라는 칭호는 그의 총선 출마 행적과 관련되어 있다. 노무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88년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1990년 3당 합당을 거부하면서 1992년 14대 총선 출마(민주당, 부산 동구), 1995년 부산시장 출마, 1996년 15대 총선 출마(민주당, 서울 종로)에 거듭 낙선하고 만다. 1998년 15대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낙선하고 말았다. 그의 이러한 무모하고 돈키호테적인 도전에 대해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붙여 주었다.

시민들과 정서적 교감을 가장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비범한 인물의 영웅적 서사보다는 평범한 인물의 ‘바보같은’ 도전이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을 때 대중의 감정적 결집은 더욱 강렬해진다.

대중은 자신이 동일시했던 인물의 비극적 종말을 보면서 노무현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을 함께 상실하게 되는 추체험을 하게 된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당시 윤여준은 “사람들은 노무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노무현은 서민 비주류의 상징이었다. 이들은 같은 계층의식을 느끼면서 노무현은 나 자신이고 나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내세운 평등의 가치로 승화되면서 강한 연대감과 결속감을 형성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서민 대중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³³

Ⅲ. 두 번의 눈물, 두 개의 감정공동체

1. 생존 공동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의 문제”(엘리아스, 2012: 10)라는 점에서 박정희의 죽음을 당시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화했는가는 살아 있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그의 죽음을 두고 애석해 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반대로 기뻐하거나 반색하는 사람들이

33 「죽어야 통했다 '사람 사는 세상」, 《시사인》, 2009년 5월 24일자.

있다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집단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공적인 인물의 죽음에 대한 집합적 애도는 공동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 인물에 부여한 신성함은 그 인물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부여한 권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권한은 집합적 열망이 투영된 성스러움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신성한 존재의 죽음은 곧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의 상실로 경험된다. 그리고 애도는 '부재(不在)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다'(이승욱·김은산, 2013).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다음 신문기사에서 보듯 충격과 망연자실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부엌에 나갔던 주부들은 새벽부터 밀어닥친 긴급 뉴스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방으로 뛰어들자 출근과 등교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모두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게 문을 열던 상인들은 문을 다시 닫아버렸고 아침 일을 나가던 택시운전사는 길에서 차를 세운 채 운전대에 머리를 묻고 영영 소리 내어 울기도 했다. …… 행상을 하는 김행춘씨(52세, 서울서대문구 홍은동)는 '서민 대통령께서 설마설마……'라는 말만 되뇌이면서 엄청난 비보를 믿고 싶지 않다고 했다. …… 권국정씨(41세, 회계사)는 '당황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박대통령을 잃은 슬픔은 내 부모를 잃은 것 이상으로 슬프다'고 했다.”³⁴

조문객 방문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전국 시·도·군·구·읍·면 단위로 설치된 1,695개 분향소에 일요일인 28일 하루 동안 65만 명의 조문객이 줄을 이어 분향했다. 이날 아침부터 줄을 이어 분향한 국민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두 흉탄에 잃다니, 이러한

34 《경향신문》, 1979년 10월 27일자.



사진3-중앙청 앞뜰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여인(왼쪽)과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에 통곡하는 길가의 시민들(오른쪽)(출처: 오픈아카이브스)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통분을 억누르지 못해 오열했고 특히 촌로와 부녀자들은 영정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며 통곡하기도 했으며 어린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분향했다.”³⁵

장례식 당일 시민들의 애도는 절정에 달했다. 다음 긴 인용문을 통해 장례식 현장의 모습을 보자.

..... 운구행렬이 한 발짝씩 옮겨질 때마다 시민들은 비좁은 인도를 뚫고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더 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기도 했고, 운구행렬이 삼청동로터리를 거쳐 경복궁을 끼고 돌 때 소복차림의 박복순 할머니(63세, 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대통령”을 목 놓아 부르기도 했다. 중앙청-서울역 앞 장례행렬이 시작되는 중앙청 앞 연도에는 새벽 통금이 해제되면서부터 시민들이 몰려 상오 8시에 이미 완전히 인파로 메워졌고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길도 9시가 넘으면서 소복과 검은 양복을 입은

35 《매일경제》, 1979년 10월 29일자.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분향객 수를 보면 28·29일 이틀간 전국 분향객은 300만 명(내무부 집계, 《매일경제》, 1979년 10월 30일자)이고, 서거 이후부터 11월 2일 현재까지 분향객은 13,287,000명으로 보고되었다(《경향신문》, 1979년 11월 2일자).

인파로 가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조가를 들으며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다리며 슬퍼했던 시민들은 장례행렬이 지나자 저마다 끓어오르는 오열을 가누지 못해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고 할머니 등 소복의 여인들은 소리내 통곡했다. …… 신복순 할머니(74세)는 장례행렬이 지나자 “우리 대통령 편히 가소서”라고 기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회색 한복차림의 신할머니는 “처음 대통령의 서거소식을 듣고는 잠도 오지 않았다”며 “마지막 길이나 보려고 아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서울에 왔다”고 했다. …… 2일 밤새도록 새 소복을 지어 입고 이날 상오 7시 30분 전철을 타고 왔다는 박말술 할머니(72세)는 “소복을 지으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다. …… 운구차가 국립묘지 정문에 도착하자 정문 앞에 몰려 있던 10여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통곡을 시작해 울음바다가 됐다.³⁶

박정희의 죽음은 곧 대중에게 각자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죽음을 의미했다. ‘서민 대통령의 죽음’, ‘내 부모를 잃은 것 이상의 슬픔’, ‘민족을 부흥시킨 지도자의 죽음’ 등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위해 뛰어든 박정희의 죽음을 자신과 공동체의 비극으로 받아들였다. 박정희와 자신의 거리감을 매우 가깝게 느꼈던 일반 대중에게 박정희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에 비견될만한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박정희의 죽음은 국가공동체의 중심축이었던 가부장의 상실이자 민족중흥을 이끈 카리스마적 영웅의 상실이었으며, 조국근대화를 동고동락하면서 지낸 친근한 이웃의 상실이었다. 대중은 이러한 상실감을 박정희 장례식에서 집합적으로 표출했으며, 거대한 의례과정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재설정하는 계기를 경험했다.

박정희는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고 늘 강조해왔

36 《경향신문》, 1979년 11월 3일자.

으며, 기사의 인터뷰 내용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상당수 국민들은 이에 동조했다. 근대적 개인의 자율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나=민족=국가' 등식은 시민들을 하나의 유기체이자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인에게 여전히 잔존해 있는 국가주의적 태도는 박정희가 추진한 일면적 근대화, 즉 삶의 모든 영역을 경제성장으로 환원시키려 했던 국가권력의 산물이다.³⁷ 박정희의 이 같은 유산은 개인의 생존과 국가의 생존을 동일시하는 운명공동체를 형성시켰다. 박정희를 애도하는 한 주부의 글에는 박정희와 대중을 연결해주는 감정적 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준다.

..... 그 분의 웃는 모습, 말하시는 모습 등은 어쩌면 이웃집 아저씨, 마을 어른 같이 그저 소탈하고 수줍고 친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 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겨울이 되면 서민의 연탄걱정을 하셨고, 서민의 쌀값 걱정을 하셨고 보리타작 걱정을 하셨고 모내기 걱정을 하셨습니다. 늘 가난한 서민의 살림걱정을 빼지 않고 해주신 그 분은 우리에게 마치 자상한 아버지 같았고 동네어른 같아서 늘 미덥고 의지하고 싶고 투정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서민 속에서 나고 서민 속에서 자랐기에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일생이 끝나기를 바란다.” 평소 이러한 신조였던 그 분은 그래서 된장찌개와 쇠비름 나물로 향수에 젖기도 하고 여행길 주막에서 대통령을 댔었다는 여주인의 말에 즐거워하는 소탈한 대중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³⁸

위의 애도 글에 나타나듯이, 표면적으로는 박정희를 ‘자상한 아버지’ 혹은 ‘동네어른’과 같은 서민적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난탈

37 김덕영, 『환원근대』(길, 2014).

38 「이 맑은 가을에 슬픔을 남기시고.....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이보혜 주부」, 《경향신문》, 1979년 10월 30일자.

출'이라는 성장주의적 패러다임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대중에게 박정희는 서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로 여겨졌다. 서민의 욕망을 가난극복에 국한시킴으로써 박정희는 대중의 다양한 욕망을 생존과 경제적 부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중은 자신과 비슷한 계급적 체험을 지닌 대통령을 마치 친부모처럼 친밀하게 느꼈으며, 생존 문제를 함께 해어나갈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생존공동체는 구성원들 대부분의 욕망(노동·정치·문화 영역 등에서 나타나는)을 경제성장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성장주의를 사회구성의 제1의 원리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산업화 세대의 심성에 강하게 각인된 성장주의 담론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 대다수에게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 '박정희 정신'에 다름 아니다.

2. 죄책감과 성찰적 공동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당시 검찰 소환을 전후로 자신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의 유언에 더욱 가슴 아파했다.³⁹ 한 일간지에 실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떤 이는 “충격이 크다. 비리 의혹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다른 이 또한 “서거 소식을 듣고 정신이 멍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청렴, 개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삶을 지탱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⁴⁰ 하지만 대중은 노무현의 죽음을

39 “.....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 중에서)

공적 정치인의 비극적인 사건 정도로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간다.

먼저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언론 및 기득권의 정치적 공세와 퇴임 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받은 감시와 압박에 대해 외면, 무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본다. 시민들은 “일상의 굳은살이 벗겨져 나가는 감각의 각성이 아픔으로 느껴진다. 그로 인해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가 죽고서야 내 지난 시시했던 삶을 반성한다”,⁴¹ “뺏아놓고 나서 너무 무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지낸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투표도 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등 노무현에 대한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한다.⁴² 한 시민은 “저 벼랑 끝에서 느꼈을 절박한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다”며 “우리가 그분을 저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건 아닌지 자책감이 든다”고 말했다.⁴³ 이러한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은 시인 백무산의 다음 시에서 극적으로 표현된다.⁴⁴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건 프로 정치가 아니야, 바보야. 진보란 그런 게 아니야! /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건 사이버 민주주의야, 바보야. 애국은 그런 게 아니야! / 아,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 말뿐이던 우리가 텅텅 빈 우리가 허세뿐이던 우리가 당신 손을 뿌리쳤습니다. 새벽답이 울기 전에 열 번 스무 번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 그렇게 당신을 버리고 돌아서니 난데없는 철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벼랑에 떠밀고

40 《동아일보》, 2017년 5월 24일자.

41 《시사인》 제90호, 2009년 6월 1일자.

42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9일자.

43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5일자.

44 「우리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드린다」,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5일자.

내려다보니 바위 벼랑 아래 치박힌 피투성이 얼굴은 우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하 생략)

이 시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시민들은 노무현을 ‘버리고’ 결국 ‘벼랑에
떠밀어 버린’ 당사자라는 죄책감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한다. 시청역 부근에
는 마지막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글귀들이 붙어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람향기가
진했던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
서는 원하는바 이루시길’, ‘당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 감사했습니다’ 등.⁴⁵
노제가 열린 5월 29일에는 시민들의 슬픔이 극에 달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에 60만 인파가 몰렸다. 옅은 미소를 띤 영정이 나타나자, 미열 속
흐느낌은 통곡과 오열로 바뀌었다. 수십 만의 사람들이 “미안해요 노무현!
다시 일어나요 노무현!”을 외쳤고 생전 육성이 선창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꿈을 꼭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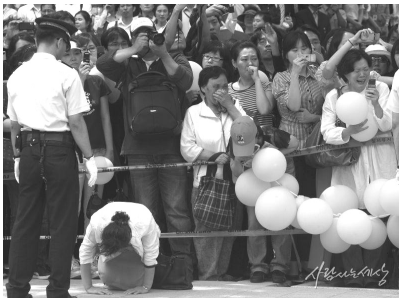


사진4-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장면(출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45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6일자.

46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9일자.

두 번째로 시민들은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집합적으로 표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성찰적으로 바라본다. 서울의 한 분향소 벽에 새겨진 어느 시민의 애도사에는 이 같은 태도가 잘 드러난다.⁴⁷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편히 쉬소서.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 우리가 할 일은 두 눈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 맞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가슴에 다르게 다가오는군요.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이었고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지요. …… 결과가 이리 되어 가슴은 아프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세상을 우리들이 조금씩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봐요.(5월 25일 ‘변신녀’)

시민들의 슬픔과 죄책감은 일시적인 감정표출을 넘어 노무현의 정치적 약속과 철학을 계승해나가겠다는 약속과 성찰의 계기로 이어진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대중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민주적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극에 달한 분노와 실망감은 노무현의 죽음을 시발점으로 ‘민주주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열망은 죄책감과 반성을 토대로 결성된 성찰적 감정공동체를 형성시켰으며, 노무현은 이들의 비극적인 영웅이자 신화적 존재로서 상징적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두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애도양식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개봉한 두 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47 《시사인》 제90호, 2009년 6월 1일자.

살펴볼 것이다. 두 대통령을 모티브로 창작된 극영화들은 몇 편 있지만 일반 대중의 애도양식이 잘 표현된 다음 두 편의 다큐 영화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IV. 애도의 감정정치: 〈미스 프레지던트〉 VS 〈노무현입니다〉

1. ‘소멸’에 대한 불안

박정희에 대한 애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문 앞을 메웠던 ‘태극기집회’ 참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보다도 더 평범하고 순박한 사람들에게서 더 진실되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정희 서거 후 해마다 그를 위한 추도식이 국립현충원과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 생가에서 열린다. ‘박사모’ 회원들도 이 날이 되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추도식에 참석하고 박정희 생가를 돌며 고인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한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 국립현충원에는 2천여 명이 모였고 구미 생가에는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8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그날 구미시장 남유진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조국은 반세기 만에 가난의 슬픈 유산을 청산하고 기적 같은 오늘을 만들어 냈다”며 “그 기적의 뿌리가 됐던 새마을 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인류 모두를 위한 새로운 물결로 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이뤄낸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⁴⁸

48 「구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 《뉴시스》, 2017년 10월 26일자(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26_0000129457&cID=10810&pID=10800).

박정희 애도에도 늘 따라붙는 ‘가난극복,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은 박정희 자체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박정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대중과의 동감의 정치를 구현했다. 그 결과 집합적 열망이 한 개인을 통해 승화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작동하는 데, 하나는 당시 가난극복에 대한 대중 일반의 실존적 열망과 다른 하나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박정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민적 풍모, 로맨스서사, 가족주의 이미지가 강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감정정치는 대통령 박정희와 일반 대중(서민들) 간의 감정적 간극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감은 특정한 감정구조를 공유한 신념공동체로 발전한다. 나아가 신념공동체의 내적 구성논리는 선/악, 아군/적군, 성/속 이분법이 명확하게 작동하는 상징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는 적대와 박멸의 대상으로 코드화된다. 박정희를 애도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그는 가난극복과 조국근대화를 함께 이룩한 자기시대의 영웅, 리더, 어른, 가족, 아버지, 심지어 자신의 영혼 일부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코드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좌익·종북·좌빨·김대중·노무현 등 적대적 코드로 대응한다.

2017년 10월에 개봉한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김재한 연출)는 박정희를 애도하는 이들의 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유형의 인물은 지극히 평범하고 서민의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⁴⁹

49 영화 속 주인공을 섭외한 이유에 대해 연출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육영수와 박정희의 생각처럼, 특정한 공간에 갈 때마다 만났던 분들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있는 농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조육형씨가 새마을운동 지도자 1기였다. 그리고 조육형씨가 소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박정희 시절 공화당의 상징이 소였고, 그건 박정희가 생각하는 국민상이 소였다는 얘기다. 울산의 김종효씨 부부를 만났을 때 마치 영화 <국제시장>(2014)의 주인공 부부가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웃음) 김종효씨는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의 역군으로 호명돼 중동에 근로자로 파견 갔던 사람이다. 그런데 박정희, 육영수를 좋아한다는 사실만 빼면 이들 부부도 우리 주변인들과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박사모라고 통 치고 넘어가는

그들에게 박정희, 육영수 그리고 박근혜는 ‘정치인’이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체계로서가 아니라 유사 가족의 일원으로 각인되어 있다. 등장인물 중 조육형씨는 충과 효로 박정희를 영접한다. 그는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벽에 걸린 박정희 사진 앞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듯 마냥 네 번 절을 한 후 ‘국민교육헌장’을 읊는다. 다른 출연자 김종효씨 부부는 박정희와 육영수를 자신의 ‘아버이’마냥 모신다.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이 부부는 각자 지갑에 박정희, 육영수 사진을 넣고 다니고 김정효씨는 자신의 핸드폰에 박정희·육영수의 사진이 박힌 핸드폰 고리를 매달고 다닌다. 그의 부인은 육영수의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수십 장을 가게에 걸어놓으면서 육영수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표시한다. 연출자 김재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정희, 육영수의 영정 앞에서 엎드려 ‘마마’ 하며 절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던 그들의 거대한 정서는 무엇인가.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리움, 박근혜 전 대통령 삼남매에 대한 동정심이다.⁵⁰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곡 중 ‘즐거운 나의 집’은 고마움, 그리움, 동정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낸 효과를 지닌다. 이 곡은 박근혜가 어린 시절 두 동생과 함께 청와대 마당에서 뛰노는 장면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로 들어서는 장면에서 깔리는데 이 두 장면에는 박정희를 애도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⁵¹ 청와대는 공적 공간

집단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들 안에도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씨네21》, 2017년 11월 2일)

50 《씨네21》, 2017년 5월 15일.

51 영화에서 ‘즐거운 나의 집’ 곡은 세 번 등장하는 데,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뒤 청와대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에서 나온다.

이 아니라 아늑하고 아련한 고향집으로 동일시된다. 이렇게 볼 때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아버지 대통령 각하’가 거주하는 청와대는 박근혜가 자란 곳이자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 자란 곳이기도 하다. ‘집’은 박정희 애도자들에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상징성을 띤 공간이다. 집이 상징하는 안온함, 평온함, 가족애, 고향, 그리움, 추억의 이미지는 오늘날 박정희 애도자들에게 자신들이 근대화시기 산업화의 주역으로 일익을 담당했던 ‘그 때’에 대한 인정이다. 연출자는 “누구라도 지나간 시절에 작별을 고하기란 어렵다. 가장 힘 있던 젊은 그 시절, 태극기 세대엔 그 좋았던 시절의 상징이 박정희, 육영수다. 누구라도 자신이 통과해온 모든 고통이 겪을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지 않나. 박정희라는 존재에 대한 이들의 의리, 사랑, 집착, 그리움도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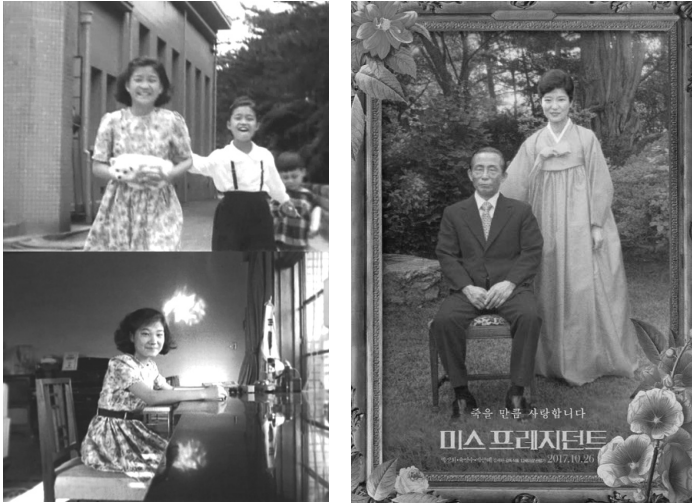


사진5-영화 <미스 프레지던트>의 한 장면(왼쪽)과 포스터(오른쪽)

52 《씨네21》, 2017년 5월 15일.

영화에 속 인물들이 겪은 가난극복과 경제성장은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배고픔과 생존이라는 가장 처절한 상황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오늘날 박정희의 기여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학술적 논쟁과 별개로 일반 대중에게는 가난극복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크게 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정희 정권의 미디어 공세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얼마나 가했는가 혹은 자신의 노동이 얼마나 억압된 구조와 환경 속에서 행해졌는지와 상관없이 생존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대중은 스스로 생존적 안정과 박정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조육형씨는 새마을운동지도자 1기생으로서 자신이 농촌과 마을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감정 기저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중 한 명이었다는 사회적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전후 세대가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형성하게 된 감정구조 그리고 생존 정치의 효과일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산업화 세대의 박정희를 향한 그리움에 대해 김왕배(2017: 21-22)는 “..... 50-60대 이상의 세대가 보이는 박정희 향수를 단순히 권력 쟁탈과 유지를 위한 특정 집단의 전략의 산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식민지와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온 중·장년 이상의 세대에게 박정희는 독재자 이기에 앞서 ‘조국과 민족의 부흥’을 이룩한 강력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비극’의 시대를 살아온 장년층에게 박정희는 미증유의 산업화를 이룩함으로써 그들을 해방시켰고,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켜냈으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영웅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과격함, 분노 그리고 슬픔을 포괄적으

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7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가 쌓아온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과 고통의 역사에 대한 이후 세대들의 몰인정은 그들로 하여금 서운함, 배신감, 무시감, 회한을 불러온다. 지난 '태극기' 집회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과격함과 분노는 자신들이 쌓아온 사회적·개인적 정체성이 훼손당했다는 데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공간이 점차 협소해져가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감정적 흥분은 그들이 보수우파 정치단체들에 의해 도구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논리로 그들을 결집시킨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적 삶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⁵³

영화 속 두 주인공들은 탄핵소식을 접하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은 박정희와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그 시절 가난했던 자신의 삶과 고통스러운 생애를 향해 있다. 전쟁의 고통, 배고픔과 가난, 빈곤국의 국민, 산업화의 역군, 평생의 육체노동 등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 전반이 부당당하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저항이 그들에게는 '태극기'로 표상됐다. 이때 태극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 일반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산업화의 역군)과 개인적 정체성(가난극복)이 투사된 상징체계이다. 태극기와의 동일시는 자신을 국가, 조국, 민족이라는 의미체계와 강하게 결합시켜주는 일종의 정체성의 정치이기도 하다.

53 이와 관련하여 연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선 이 영화가 자기 시대를 떠나보내는 이야기다. 본인이 가장 고생했고 또 힘 있었던 한 시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슬픔이 있었을 거다. 박근혜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실제로 탄핵이 결정된 이후, 영화에 등장하는 청주의 조육형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들과 우리는 삶의 경험이 다르다.”(《씨네21》, 2017년 11월 2일)

2. 미완의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도 해마다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노무현 애도에는 ‘정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코드들이 따라 붙는다. 박정희 애도에서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다면 노무현 애도는 정치적·문화적 가치가 중시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군사정권을 무너지고 격렬한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노무현은 그러한 정치사회적 격변 과정에서 탄생한 인물이었다. 부림사건을 계기로 노무현이 걸어온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면모는 알려진 바와 같이 부당한 정치권력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점철되었다. 노무현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 인간으로서 실현하고자 했던 정의롭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을 자신들도 공유하고자 했다.

〈노무현입니다〉(이창재 감독, 2017)는 노무현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심성



사진6-영화 〈노무현입니다〉 포스터(왼쪽)와 영화의 한 장면(오른쪽)

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노무현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극적으로 거치면서 대선후보에 등극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서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기득권과 부조리에 맞서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노무현은 '노사모'라는 정치적 시민공동체이자 후원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시 처음 도입된 민주당의 대선후보 국민경선제를 통해 처음에는 가능성이 희박했던 대선 후보에 선출되게 된다. 이때 노무현이 강조했던 가치는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 그리고 국가권력의 분산이었다. 그의 드라마틱한 경선 과정은 노무현의 진정성을 알게 된 계기였으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처럼 비춰졌다.

영화에는 노무현과 정치적 여정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려진 노무현은 까칠하고, 거칠고 고집도 세며, 책임감과 의지력이 강하고, 불의에 쉽게 분노하고 흥분하는, 그러면서 서민적 하비투스를 숨기지 않는 솔직함을 지닌 인물이다. 어쩌면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노무현의 그와 같은 품모에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노무현은 쉽게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05년 당시 인터넷에서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유행어가 번질 정도로 노무현은 기성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태도는 그의 죽음 앞에서 극대화된 슬픔으로 승화되었다. 그 슬픔은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회환이 결합된 복합감정이었다. 노무현의 탈권위주의는 일반 시민들에게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장을 대폭 열어주었다. 어쩌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체험하면서 권력자를 향한 맹목적인 비판을 민주적 참여로 오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체험마저도 얼마나 고귀한 것이었는가를 알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매우 제한되어버린 민주적 공론장은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영화 속 관련 인물들은 노무현을 “잘 모시지 못해 안타깝다”, “우리는 그를 외롭게 두었다”라고 미안해하고 자책한다. 노무현을 애도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감정으로 노무현을 그리워할지 모른다. 노무현의 죽음을 대면한 수많은 시민들의 슬픔과 분노에는 자책감과 원망이 깊게 서려있다. 노무현을 애도하는 대중은 그 자책감을 발판으로 하나의 시민공동체로 발전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작동한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가치에 무관심했거나 외면했다는 죄책감과 다른 하나는 ‘노무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아랫사람들을 위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깨어 있는 시민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자기성찰이다. 노무현을 애도하는 사람들은 민주적 시민공동체를 꿈꾼다. 이들은 노무현에 대한 향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가 구축한 세계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열린 세계를 꿈꾼다. 노무현의 묘비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이들을 결속시키는 궁극의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그 힘의 합리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박정희와 노무현의 서거를 둘러싼 대중의 반응

	박정희	노무현
이미지	서민적 품모, 소박함, 친근감, 강직함, 책임감, 어버이, 카리스마	소탈함, 승부사, 풍운아, 도전자, 비주류, 바보
애도담론	가난극복, 조국근대화, 경제발전, 민족중흥	민주주의, 탈지역주의, 탈권위주의, 인권, 정의
분출된 감정	슬픔, 상실감, 동감, 불안, 동정심, 그리움	슬픔, 미안함, 죄책감, 자책감, 울분, 희망
집합의식	생존적 운명공동체	민주주의적 성찰공동체

V. 맺음말: 민주적 인정공동체를 향하여

대중적 슬픔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감정적 분위기를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신성화된 표상을 재확인하고 재구성하는 집합적 노력이다. 대중들이 행하는 집합적 혹은 공적 애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통의 사회적 기억과 상상을 만들어 내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 같은 힘은 서로 다른 애도공동체 간의 분열·적대·증오를 유발시키는 데에도 작동한다. 그 기저에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 인지적 이념, 역사적 경험, 공유된 상징체계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통해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에 대한 '차별화'와 함께 집단 내 결속력을 강화한다. 이 두 과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집단구성원들의 육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습속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때의 습속은 집단 내적으로는 사랑·존경·헌신·충성을 다지게 하지만 집단 외적으로는 무관심·적대·혐오를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습속에 내재된 감정은 인지적 사고과정을 생략한 채 곧장 행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박정희 사진을 보고 일순간에 공통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데에는 그와 같은 습속의 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은 한국현대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두 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해 대중들이 경험한 집합적 슬픔과 애도행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두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애도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효과 또한 매우 컸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두 감정공동체들 간의 이념적·감정적 대립과 갈등 양상에서 잘 나타난다. 두 대통령에 대한 각각의 애도의례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생애서사 혹은 삶의 경험 자체를 공유하는 일종의 운명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운명 공동체는 유사한 생애적·세대적 경험, 상징체계, 문화적 에토스 등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들에 대한 애도담론을 보면 ‘서민대통령’, ‘영웅서사’, ‘자수성가’를 상징하는 표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을 가난과 배고픔으로 보냈으며, 혹독한 시련과 차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영웅으로 상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은 다름 아닌 대중 각자가 살아온 자기서사와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도 유사가족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운명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속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중에게 박정희와 육영수는 ‘아버지’, 반대로 노무현은 ‘친구같은’, ‘이웃집 아저씨’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두 대통령이 밟아온 서로 다른 정치적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있어서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곧 내 부모의 죽음 그리고 친근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해된다. 그런 만큼 대중이 두 대통령에게 투사했던 감정은 대중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 간의 상상적 친화력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대통령의 죽음 사이에는 30년의 시간적 간극이 놓여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중의 정치적 감각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시간적 격차와 정치적 경험은 현재 박정희를 애도하는 사람들과 노무현을 애도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로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에 개봉한 <미스 프레지던트>와 <노무현입니다>를 분석했다. 전자는 박정희와 육영수를 추앙하는 사람들의 감정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면, 후자는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감정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범박사모 사람들은 박정희를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영웅으로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현재 삶과 박정희 시대를 동일한 시공간에 위치시키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몰락을 자기 삶의 예고된 몰락처럼 받아들인다. 반면 범노사모 사람들은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삶, 약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대통령, 소탈하고 서툰 서민의 풍모를 가진 사나이로서 노무현을 기억하면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죄책감으로 노무현을 애도한다. 범박사모가 저물어 가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애잔함과 현재 자신의 삶에서 겪는 사회적 무시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태극기'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범노사모는 아직 미완결된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노무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반응으로 '촛불'을 내세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구성한다.

지금의 한국은 여전히 이 두 감정공동체가 사회갈등의 거대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히 이념적·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넘어 오래된 습속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상호 간의 무시와 무지로 인한 적대적 관계로 공존하고 있다. 두 감정공동체 간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지난한 소통적 과정을 생략한 채 반세기 동안 반복하면서 대결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구도의 대결이 단기간에 끝나리라는 기대는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의 시간적 무게를 짊어지고서라도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그 출발은 각자의 삶과 생애에 대한 인정체계를 구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지난한 민주적 절차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산업화세대가 공유하는 반공주의와 생존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정하면서도 이를 민주적 소통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면, 다른 한편 민주화세대가 공유하는 자유와 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의 엘리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정치의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 행태는 상호 민주적 소통에 의한 인정체계의 부재로부터

비롯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한 세대가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습속으로 전승된다는 점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실존적 문제이자 미래 세대의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고 마무리짓고자 한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논문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신문기사들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 신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박정희 서거와 관련해서는 보수매체를 중심으로, 노무현 서거와 관련해서는 진보매체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 보수매체가 노무현의 서거와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 반대로 진보매체가 박정희의 서거와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상호교차 분석함으로써 감정구조의 다층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감정공동체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시사인》, 《씨네21》,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21》.

〈노무현입니다〉(2017), 〈미스 프레지던트〉(2017).

〈KBS 광복60주년 영상실록 (1965년) 편〉.

〈오픈아카이브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archives.kdemo.or.kr/main>).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2. 단행본

김덕영, 『환원근대: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길, 2014.

노무현재단기록위원회, 『내 마음 속 대통령』. 한걸음: 더, 2009.

뒤르케임, E. 저, 노치준·민혜숙 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1992.

레이코프, G. 저,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엘리아스, N. 저, 김수정 역, 『죽어가는 자의 고독』. 문학동네, 2012.

이승욱·김은산, 『애완의 시대』. 문학동네, 2013.

터너, G., 『셀러브리티: 우리 시대 셀럽의 탄생과 소멸에 관하여』. 이매진, 2018.

Ben-Ze'ev, Aaron, *The Subtlety of Emotions*. MIT Press, 2001.

Elias, *What is Sociology*. London: Hutchinson & Co., 1970.

Kemper,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New York: John Wiley, 1978.

3. 논문

김왕배, 「서론: 향수의 사회학」. 김왕배·박형신 외, 『향수 속의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2017, 13-38쪽.

베레진, M. 「감정과 정치적 공동체: 정체를 위한 감정동원」. 제프 굿윈 외 저, 박형신·이진희 역, 『열정적 정치』, 한울아카데미, 2012, 128-151쪽.

이완수·최명일, 「한국 대통령 죽음에 대한 집합기억: 김대중·노무현 사후평가

대한 미디어의 언어구성』.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2014, 123-152쪽.
황병주, 「대중은 박정희의 성공을 욕망했다」. 권보드래·김성환·김원·천정환·황
병주 저,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천년의 상상, 2015, 89-103쪽.

Freeden, M. "Editorial: Emotions, ideology and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2013, pp. 1-10.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현대사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두 대통령,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해 시민들이 표출한 집합적 슬픔과 애도행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두 대통령에 대한 애도양식을 살펴보면 박정희는 보수, 노무현은 진보라는 상반된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라 구분되기보다는 박정희는 경우는 가난극복과 조국근대화를 위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생존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노무현의 경우는 탈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면서 서민적 투박함을 지닌 지도자로 재현된다. 현재까지 두 대통령을 각기 다른 상징체계를 통해 애도하고 있는 감정공동체는 지도자의 개인적 생애 및 정치적 여정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로 받아들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다큐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와 <노무현입니다>를 분석하여 서로 다른 감정공동체의 감정구조와 감정동학을 살펴보았다.

투고일 2018. 12. 14.

심사일 2019. 1. 15.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집합적 슬픔(collective sadness), 애도(mourning), 박정희(Park Jung-hee), 노무현(Roh Moo-hyun), 감정공동체(emotional communities)

Abstracts

The Mourning Discourse and Emotional Politics Inherent in the Collective Grief of the Mass

Joung, Su-nam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collective grief and mourning action which citizens expressed around the two presidents, Park Jung-hee and Roh Moo-hyun, who were tragically killed in Korean modern histor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ms of mourning for the two presidents, regardless of their opposing political ideologies, Park Jung-hee was represented as a leader of a survival community that has been struggling together to overcome poverty and modernize the country, while Roh Moo-hyun was represented as a leader with a folksy roughness while devoting himself to post-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Each of emotional communities that mourns the two presidents through different symbol systems has accepted their tragic death as a loss of their identity by identifying the personal life and political journey of each of the leaders with their own lives. To elucidate this, I try to examine the emotional dynamics and the emotional structure of different emotional communities by analyzing the documentaries <Mis-President> and <Our President>.

